

사회

Social Affairs

광주일보

제17154호 2006년 6월 1일 목요일

“독도는 일본땅” 망언에 악플 단 네티즌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친일작가 김완섭씨의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기”는 인터넷 칼럼에 비난성 댓글을 단 네티즌 1천여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김씨의 글에 단 악성 댓글에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독도 조례를 발표한 날 논란이 되는 글을 올렸고 본인도 비난성 댓글을 예상했다고 진술했다”며 “김씨는 글을 통해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등 책자 홍보 목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임수경(1989년 방북해 사회적 관심을 모음)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처벌받은 전례가 있지만 김완섭씨는 과거 ‘참녀론’이라는 글로 악성 댓글을 경험한 적이 있는 데다 본인 스스로 글을 올려 임씨 사건과는 결과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 등을 써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김씨는 지난해 3월 한 정치 사이트에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주기’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수천명의 네티즌들이 김씨의 칼럼에 비난성 댓글을 쓰자 김씨는 을 2월 네티즌 570여명을 검찰에, 500여명을 경기경찰청에 각각 고소했으며, 한나리당 원희룡 의원이 피고소 네티즌들의 무료변론을 자청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연합뉴스

정동구 회장 첫 공판 앞두고

변호인 3명 돌연 사임

회삿돈 797억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동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1일 첫 공판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등 변호인 3명이 동시에 갑자기 사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회장의 보석 신청(26일) 직전인 23일 변호인 선임계를 냈던 김엔장 법률사무소 소속 이인수·김상근·신필중 변호사 등 3명이 1주일 만인 30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정 회장측이 변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판사 출신 변호인을 대거 보강했지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1심 참여, 특정 로펌(법무법인) 변호사 위주의 선임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자 다소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회장 사건에는 김앤장·태평양 등 대형 로펌 2곳 소속 변호사들을 포함해 20여명의 변호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모두진술(冒頭陳述)만 진행된다. /연합뉴스

■ 전형준 화순군수



전형준 화순군수 당선자가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화순=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독학·맨손으로 건설사 일궈

“부자화순 만드는 郡政 최선”

“기업을 경영하면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화순 경제발전을 이끌어 군민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건설회사 대표 출신의 전형준(50) 화순군수 당선자는 현직 군수의 벽을 뛰어넘어 큰 표차로 당선돼 민선 4기 화순군정을 이끌게 됐다. 전 당선자는 빙동의 아들로 태어나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지 못하고 빙순으로 건설회사인 다산건설(주)를 설립, 연매출 700억원 규모로 키운 입지전적인 기업인이다.

또 25세 때 독학으로 고졸 경정고 시에 합격했으며 건설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지난 2002년 성균관대에 입학하고 서강대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는 등 만학의 열정을 불태우기도 했다.

그는 회사가 안정되자 10여 년 이

상 무명의 독지가로서 모교인 사평초 등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장학사업을 펼쳐 왔다. 또 고향에서 생산된 쌀을 사서 지역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해왔다.

그는 회사 경영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고향을 위해 쓰는 것이 어려워나는 선후배의 재안을 받고 ‘경제 군수’ CEO 군수를 표방하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전 당선자는 “민선 3기에 화순군민 사이에 나타난 갈등과 분열을 포용과 화합의 군정으로 치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후 화순 경제발전을 통해 8천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인구 10만 시대를 열고 고품질 지역 브랜드를 1년 반 안에 개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87년 6월 황병 이후 사면 석방된 뒤 바로 고향인 나주로 내려가 농민운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00년 전국 최대의 나주농민회를 조직, 농민운동

부지기수로 키운 jkpark@kwangju.co.kr

■ 신정훈 나주시장



신정훈 나주시장 당선자가 당선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나주=위직령기자 jwji@kwangju.co.kr

민주당 꺾고 무소속 2연패

“세계제일의 혁신도시 건설”

민주당의 장벽을 넘어 무소속 2연패를 달성한 신정훈(41) 나주시장 당선자는 “백년 나주의 낙후와 침체를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으로 알겠다”며 “앞으로 4년동안 성공적으로 나주 혁신도시를 만들기 지역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당선자는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재학 중인 지난 1985년 5·18 진상규명과 미국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서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투옥됐다. 또 87년에는 부당한 수세(水稅) 강제징수 저지 투쟁을 주도하다 아내 주향득씨와 함께 투옥되는 등 두 차례의 옥살이를 경험한 ‘386세대’의 대표주자이다.

그는 87년 6월 황병 이후 사면 석방된 뒤 바로 고향인 나주로 내려가 농민운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00년 전국 최대의 나주농민회를 조직, 농민운동

부지기수로 키운 jkpark@kwangju.co.kr

나우침
6843
김홍우



연예 2자 동일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대 중 35세대 333세대
문의 (062) 366-4220

장애 노모 기표 들판 막자 투표용지 찢어

상대방
○강진의 한 투표
소에서 시각장애인
노모(老母)의 기표행
위를 둔 30대가 선거관리 요원들의 물리적 제지에 반발, 투표용지를 훼손했다
가 사법처리될 처지에 놓았다고.

○강진군 칠랑면 김모(33)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11시20분께 칠랑면사무소 내 투표소에서 1차 투표를 끝낸 어머니가 광역단체장·광역의원(비례대표) 선출용 투표용지 3장을 추가로 배부받은 후 2차 기표소로 향하는 과정에서 부축하다 제지를 당하자 투표용지 3장을 모두 찢는 등 거세게 항의.

○김씨는 선관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불잡혔는데, 선관위 측은 “선거인명부 확인과정에서 장애를 미리 밝히지 않아 중증장애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제3자의 도움은 이 때문에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

○경찰은 현행 선거법상 투표용지 손괴가 실정법 위반인 하나, 장애인 가족의 투표 보조행위도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

/강진=이병철기자 mood@kwangju.co.kr

선거사범 급증…무더기 당선무효 예고

검찰, 3,130명 입건

5·31 지방선거와 관련돼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검찰과 법원이 엄단의지를 보이고 있어 무더기 당선무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진 31일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3천 130명으로 3회 지방선거 당시 전체 2천

78명에 비해 무려 50.6% 증가했다.

구속된 선거사범은 193명에 달하고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선거사범 45명 중 8명은 후보자 본인들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공천 등의 여파로 과열됐고 선거 이후 상당기간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선거사범은 5천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후보자 본인이 고발된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당선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정도가 심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총 684건이고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우리당 91건, 민주당 73건, 국민중심당 26건, 민주노동당 8건 등이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건자를 기준으로 3회 선거 때보다 최소 1천명이 많은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선거 사상 가장 많은 당선 무효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청문살당교사, 영양교사, 임상교사를 구하는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는데 우선하고 심고한 학습カリキュラム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구도를 제작 여건이 갖추어 놓아 하고, 비교 우위의 척도를 갖춘 학습カリキュラム과 그것을 실현하는 시스템을 제공해온 바 있다. 그리고, 유익하고 흥미로운 학습환경을 제공해온 바 있다.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직내영 선생

▶ 국어/최병해 교수

▶ 수학/임대성 교수

▶ 과학교육론/정영민 교수

▶ 생활/강자우 교수

▶ 지구화학/박병순 교수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유아교육과정/엄미선 선생

▶ 초등교과과정/위재권 선생

전국 최강의 강사진 만을 모집합니다.

교원임용 동영상 강의
에듀뷰넷

http://www.eduvview.net

성장한 학원강재제를 원하는 시민은

하는 평생학습 활동을 통해

하는